2022년 / 9월 3주차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 불볕더위와 태풍의 상철르 뒤로하고 어김없이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땀 흘린 만큼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가족의 정을 확인하는 한가위 잘 보내고 계신지요.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찾아오는 계절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삶도 갈등보다는 평화가 더 크게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태풍 뒤 끝이라 다른 해보다 여러 상념이 짙어지는 한가위입니다. 스치듯 다녀와야 할 고향길, 급한 발걸음의 와중에도 여유 잃지 마시고 이번 명절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뜻있고 따스한 시간 나누시길 빕니다.

긴 시간 변함없이 “모두를 위한 내일”을 위해 우리 연구원에 사랑과 믿음을 보내 주고계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인사를 전합니다.
남은 연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거듭 빌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2022년 9월 11일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이사장 김병문 올림

연구원 소식

<대청호 오백리 둘레길 걷기> 동아리 활동

○ 일자 : 2022. 9. 2(토) 13:00 ~ 9. 3(일) 17:00

○ 인원 : 8명(유영봉, 김종우, 박해숙, 한철, 박해련, 변주승, 박애스더, 황일진)

○ 주요 활동내용

- 9. 2(토) 옥천군 금강변 김종우 회원 별장에서 저녁식사를 겸한 바비큐 모임 도중 석양 반대편 동쪽 하늘에 무지개가 뜸.
- 9. 3(일) 9시경 출발, 차량을 시작점과 종점에 주차후 둘레길 2구간 걷기 시작. 대청호수를 끼고, 아홉개의 봉우리를 지나 15:00경 종점 도착. 식사 후 해산

동아리 활동 특별기고

대청호 둘레길 걷기 이야기

유영봉

대청호 오백리 길 표지판 앞에서

전야제

세상에 무슨 하늘이 이렇게 고울까? 하늘은 먼저 옥빛을 듬뿍 찍어 한가운데를 칠하다가, 설핏 물감이 모자랐는가? 귀퉁이 빈 곳은 동해의 짙푸른 바다 빛을 빌려다가 채웠다. 그리고는 나중에 구름을 띄워놓았다.

앞쪽으로 하얀 조각구름이 줄줄이 떠갔다. 좌우로는 회색 구름이 길게 호위하며 흰 구름을 뒤따랐다. 돌아보면 검은색을 덧칠한 하늘이 무거웠다. 태풍 힌남노의 전조다.

마음 한 자락에 걱정도 일었지만, 이 또한 어쩌랴?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다. 더구나 삼례에서 익산을 거쳐 논산을 뚫는 고속도로 위쪽의 하늘은 크고도 아주 넓지 않던가?

그렇다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또 한 대의 차도 수원을 지나면서 멋들어진 저 하늘을 우러르다가, 그들 역시 일순 말문을 잃었으리라. 감탄사만 연발하고 있으리라. 문득 평택 평야의 하늘까지 궁금해졌다. 전주에서 출발한 차에는 변주승과 박애스더 회원 내외・박해숙 회원이 탔다. 서울에서 출발한 차는 황일진 회원이 운전하고, 한철과 박해련 회원 내외가 동승을 했다. 옥천 별가에서는 내 친구 김종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6시 무렵 대청댐500리 둘레길을 걷기 위한 회원들이 모두 모였다. 미리 준비해둔 숯불 위에 소고기가 올라갔다. 이는 순전히 한국고전문화연구원에서 행하는 소규모 동아리 지원사업 덕분이었다. 비비큐에 옥수수와 감자에다 가래떡이 빠질 일 없었다.
술잔이 오갔다. 대장정을 기원하는 열기가 뜨거웠으니, 그 때문이었을까? 어느 순간 동쪽 하늘에 고결하고 수려한 무지개가 자태를 드러냈다.

사진 왼편 상단에 선명하게 무지개가 보인다.

우와! 이야! 와아!
외침은 저마다 달랐지만, 위대한 조물주의 작품 앞에 매료된 회원들의 감동은 절로 하나가 되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가? 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광경인가?
이윽고 땅거미가 내려앉았다. 회원들의 유대감이 혹여 새어나갈세라, 어둠은 주변을 꼭꼭 여미고 또 여몄다. 밝은 불빛 아래 행복한 밤이 깊어갔다. 발아래에 술병들의 숫자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갔다.

대청댐500리둘레길 제2구간

지난 토요일 10시 30분 무렵 이현동생태공원에서 첫걸음을 뗐다. 대청댐500리둘레길 제2구간의 출발점이다. 제1구간은 지난번에 서곡序曲 삼아 걷지 않았던가?
공원에는 철골로 엮은 무지개 형상의 터널 아닌 터널이 몇 개 이어졌다. 그 안에는 호박과 수세미에다 조롱박이 주렁주렁 매달렸으니, 회원들은 그 푸른 터널을 뚫고 나아갔다. 흐린 하늘이라 날씨가 시원했다.

길은 곧바로 호숫가를 따라갔다. 가을을 맞은 푸른 물살이 한층 싱그러웠다. 잠시 후 다리 위에서 회원들의 환한 웃음을 몇 장의 사진에 담았다. 평탄하게 뻗은 길은 다시 송림과 잡목림을 번갈아 지났다. 대청호 쪽으로 불쑥 튀어나온 성치산성의 아랫자락을 따라가는 길이었다. 흥겨운 걸음 도중 고맙게도 알밤 몇 개를 주웠다.

1시간 30분가량을 소모했을 즈음, 문득 세 갈래 길이 나타났다. 먼저 왼쪽 길 200m 지점에 나앉은 전망대를 찾았다. 여느 전망대와 달리, 이곳은 물가에 자리를 잡았다. 널디 너른 수면에 가슴이 탁 트였다. 전방의 청남대가 아스라했다.

숲과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자유가...

맑은 호수를 바라보며 간단하게 점심을 마치고, 걸음을 되짚었다. 다시 삼거리에 다다른 뒤, 오른쪽의 성치산성을 향해 뻗은 능선 길을 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길은 몇 번을 위아래로 굽이쳤으니, 회원들은 너나없이 굵은 땀을 뚝뚝 흘렸다. 가파른 경사에 가쁜 숨을 헐떡거렸다.

서너 개의 봉우리를 지나 겨우겨우 도착한 성치산성은 아주 작았다. 한마디로 초라했다. 만약 이곳만을 목표로 삼았더라면, 아주 크게 실망할 만한 곳이었다.

산성을 지난 후에도 오솔길은 송림 사이에서 너덧 차례 오르내렸으니, 우리는 도리없이 땀을 쏟았다. 등짝은 벌써 흥건해졌다. 그때그때 올라선 봉우리에서는 호수의 물빛만큼이나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두 시간이 넘도록 진땀을 빼게 하던 능선 길은 직동稷洞에 이르러 편안해졌다. 차 한 대가 넉넉하게 지나가는 시멘트 포장도로를 만난 것이다. 길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마침내 냉천동 버스 종점에 도착했다. 도합 다섯 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10km의 길이었다. 햇살이 어느새 따끈했다.

■ 역사 속의 오늘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다 – 1977. 9. 15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직후의 모습. 사진은 동행했던 셀파 펨바 노르부가 촬영했다.

9월 15일은 대한산악연맹이 제정한 산악인의 날로 1978년부터 기념되고 있다. 산악인의 날이 9월 15일이 된 것은 이 글의 제목과 같은 목소리가 1977년 9월 15일 무전기를 타고 들려와서 가능했다.

1970년 5월. 일본이 에베레스트에 오른 것에 자극 받은 우리나라는 산악연맹 등을 주축으로 에베레스트 원정을 추진한다. 1971년 네팔 정부에 입산 신청을 했고, 2년 후에야 겨우 허가를 받는다. 1974년부터 설악산 동계훈련 등 준비 과정이 무려 5년여, 훈련 중에 3명의 대원이 사고로 죽었다. 그 만큼 지독하고도 치열한 목숨을 건 훈련이었다. 당시 유신정우회 의원이었던 김영도를 등반대장으로 총 18명의 원정대가 출발한 것은 1977년 7월이었다.

그러나 9월 7일 정상 1차 공격조는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부실한 장비와 체력방전, 산소 부족 등으로 정상 100m를 남기고 포기, 결국 나흘 뒤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제 2차 공격조는 고상돈과 현지 셀파, 그렇게 단 두 명으로 구성했다.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서기 전인 6월, 이미 유서까지 써놓았던 고상돈은 출발을 앞둔 9월 12일, 유서에 아래와 같이 글을 첨가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꼭 이겨서 돌아가야 한다. 일생의 모든 것을 건 이 도전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건 생명의 파멸을 뜻하는 것이다. 패배란 죽음만큼 괴로운 것이다."

그는 정상을 정복했을 때의 사진 효과를 생각해서 붉은색 등산복을 준비했다. 그리고 1976년 설악산에서 훈련하다 숨진 동료 대원 3명의 사진을 그 주머니에 넣었다. 9월 15일 오전 5시에 출발한 고상돈과 셀파 펨파 노르부는 7시간 20분의 사투 끝에 낮 12시 50분(한국시간 오후 4시 30분)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정상에 오를 때까지 음식도 물도 없었다. 무게 때문이었다.

어디가 정상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웠지만 2년 전 중국 원정대가 세웠던 삼각대를 발견하면서 정상임을 확인했다. 셀파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태극기를 든 고상돈의 사진을 찍는 동안 그는 정상에 1시간가량 머물면서 앞서 간 동료들의 사진을 만년설에 묻었다.

"떨리는 손으로 태극기를 꽂았다... 사진을 묻고... 중국 등반대의 삼각대를 밟으며,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신비롭고 웅장한 히말라야의 설봉들을 굽어보며 보낸 1시간 정도의 그 시간은 내 생애 가장 길고도 짧았던 순간이었다. 내 일생 극한의 행복에 겨웠던 시간이었다."
고상돈은 후에 정상에서의 순간을 그렇게 기록했다.

그가 에베레스트에 오름으로 한국은 국가별로는 세계에서 8번째, 등반팀으로는 14번째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국가가 되었다. 또한 세계에서 처음으로 몬순(계절풍) 기간인 9월중 정상 등반에 성공한 기록을 남겼다.

극한의 행복을 만끽하고도 탐험을 멈추지 않던 고상돈은 1979년 5월 29일 알래스카 매킨리산을 등정하고 하산 도중 추락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